

2. 장승

장승은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목상이나 석상을 말한다. 마을의 수문신·수호신, 사찰이나 지역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구실을 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의 상부에 사람의 얼굴 형태를 소박하게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에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 등의 글씨를 새겨 거리를 표시한 민속조각품으로 보통 남녀가 쌍이 되어 마주 서 있다. 장승은 동제(洞祭)의 주신 또는 하위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솟대·돌무더기·신목(神木)·서낭당·입석 등과 함께 동제 복합문화를 이룬다.

1) 승주읍 죽학리 선암사 장승

이 장승은 선암사의 부도전을 지나 첫번째 홍교를 건너기 전에 길가에 2기가 남북으로 마주보고 서 있다. 현재의 장승은 1987년 7월에 조성하여 세운 것이며 남쪽은 방생정계(放生淨界 : 높이 300cm), 북쪽은 호법선신(護法善神 : 높이 280cm)이다. 선암사 신도이며 현재 매곡동에 거주하는 목각공예가 심남섭이 조각하여 시주한 것으로, 재료는 밤나무이다.

두 장승은 원통형 보관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몸통을 붉게 칠하였다. 후면에는 “정묘년 7월 작”이란 명문이 있고, 모두 수염을 몸통까지 늘어뜨린 남성상이다. 외호신적 경계표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 낙안면 내운1구 장승

마을로 들어가는 좌·우측 도로에 1기씩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이들을 ‘벽수’라고 부르고 있다. 좌측 도로 입구에 있는 장승은 남자이고 천하대장군으로서 백호로 상징되고 크기는 높이 120cm, 둘레 38cm이다. 우측 도로에 있는 장승은 여자이고 지하여장군으로서 청룡이라고 하며 높이 65cm, 둘레 40cm이다. 장승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다.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매년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뒷산에 용미라 부르는 2곳과 양쪽 당산나무, 그리고 2개의 벽수에 각기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내는데 이때 매구를 치며, 해마다 장승을 다시 세운다고 한다. 천하대장군은 마을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옆에 버려두었다.

3) 송광면 이읍리2구 장승

마을의 북서쪽으로 작은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좌우에 목장승이 1기씩 있다. 도로 좌측에 있는 목장승을 ‘서방’(높이 220cm, 둘레 65cm), 우측에 있는 장승을 ‘각시’라 하여 부부로 생각하고 있고, ‘벽수’로 부르고 있다.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매년 정월 보름에 할머니당에 당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각시벽수’ 바로 뒤쪽과 남쪽으로 나 있는 마을 입구 두 곳에 1976년까지 ‘솟대(짐대)’를 세웠다고 한

다. 솟대는 전신주 높이의 나무 위에 먹이를 물고가는 오리의 형상을 깎아 꼭대기에 얹혀 세웠으며, 마을이 배 형국이기 때문에 배의 돛대로 상징되고 일종의 액막이의 기능을 하였다.

4) 송광면 오봉리 오리치 장승

마을 앞으로 동남간 약 50m 입구 도로변에 당산나무가 있다. 이 당산에서 약 50m 전방의 도로변에 솟대(짐대)를 세웠고, 석장승이 있어 당산제를 지낼 때 매구를 치고 금줄을 걸었다고 한다. 당산제가 없어지면서 석장승은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가 근년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매몰되었다고 한다.

5) 서면 비월리 덕진 목장승

이 장승은 목장승으로 비월리 덕진마을 입구에 서 있다. 당산나무 아래에 서 있는 이 1기의 목장승은 10여 년 전에 젊은 학생들이 마을의 안녕과 수호를 위해 세웠다고 한다. 상은 남성상이며 전면에 '천하대장군 손흥기 외 5명'이란 목서명이 있다. 규모는 높이 240cm, 너비 25cm이다.